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짧은 일정 가운데 그리스 난민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새로운 난민들이 조금씩 그리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저희는 난민 캠프 두 곳과 여러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며 아프간, 이란, 콩고, 예멘, 남수단, 북수단,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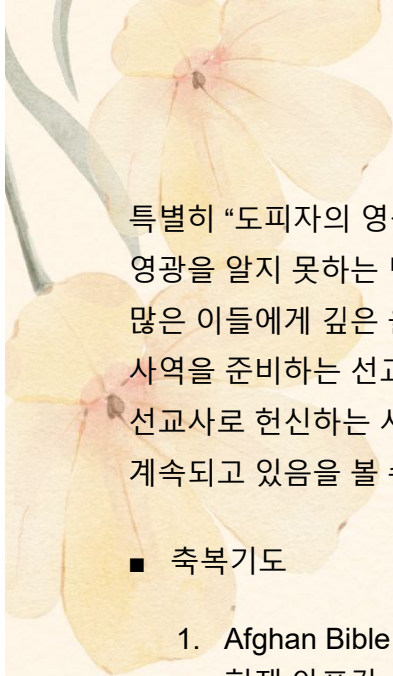
특히 마지막 날 캠프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난 한 아프간 형제는 탈레반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그리스까지 오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마음 아파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저희는 준비해 간 아프간 성경과 선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아프간, 시리아, 수단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난민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아테네 바닷가에서는 아프간과 이란 형제를 위한 세례식이 있었는데,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민 가정을 심방 하던 중에는 오래전 제가 그리스 사역 시절 알고 지냈던 유습(요셉) 형제의 가정을 우연히 다시 방문하게 되는 감사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리스 난민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함께한 팀원들 역시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제 11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사역과 간증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영역인 난민선교 분야에 속하여 오후 그룹 강의도 하였습니다. 난민선교의 시작에는 탈북민 사역이었고, 오늘날 난민선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깊은 공감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도피자의 영성”으로 무장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사야 66 장 19 절의 말씀은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품고 북한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 역시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축복기도

1. Afghan Bible Institute (ABI)

현재 아프간 신학교는 학기말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2026 년 가을학기에 더 많은 아프간 신입생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학기에는 구약(모세오경), 신약(바울서신), 상담학 과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교수님들과 통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 Afghan Hope Church

현재 달라스 근교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 허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15 만~20 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무슬림들은 달라스를 “미국의 메디나”라고 부를 정도로 공동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달라스 지역에 아프간 난민들의 문화와 공동체적 특성에 맞는 아프간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집(약 25 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영적·육체적 강건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9)

주 안에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